

[ TV ]

TV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 엄기영 앵커 소신인가? 고집인가?

## '사랑의 열매' 배지 달지 않은 이유 놓고 네티즌 의견 분분

MBC뉴스데스크 엄기영 앵커의 소신 지키기(?)가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다.

"미더어 오늘"은 25일 '엄기영 앵커의 소신? 고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엄앵커의 '배지론'에 대해 보도했다. 12월이 되면 대부분의 뉴스 앵커들이 어김없이 옷깃에 다는 '사랑의 열매'는 물론, 어떤 좋은 뜻의 배지도 달지 않은 엄 앵커는 '배지가 시청자의 관심을 분산시킬 뿐 아니라 시청자에게 상장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는 소신을 계속 지켜오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프로그램이 라면 몰라도 뉴스에서 만큼은 특정 의미의 상징물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처에서 내놓은 배지도 딱 하루 달았을 뿐이고, MBC노조 파업 때 뉴스에서 '민주언론' 리본을 달자는 노조의 권유를 거부하기도 했다.

"미더어 오늘"은 엄 앵커는 "좋은 의미라고 해서 이것저것 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받아할 수 없게 된다. 더 좋은 뜻이고 더 중립적인 뜻이라고 해서 계속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순식간에 2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네티즌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는 관련 기사가 하루종일 톱을 장식했다.

아이디 'morefree'는 "소신이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뜻이다"며 "소신이 있고 주관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시대에 필요한



엄기영 앵커(왼쪽)와 '사랑의 열매' 배지(점선)를 단 김연국 앵커.

사람이라고 보인다"는 글을 남겼다. 아이디 'girl83916'은 "안좋은걸로 믿고나기엔 고집이지만 이렇게 설득력있는 행동은 소신으로 봅니다.멋지네요"라는 댓글을 올렸다.

반면 배지 하나만 가지고 소신을 말하기에 확대 해석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었다. 'oz0205'는 "소신 고집은 좋지 한장 차이"라며 "배지 하나 달고 말고 가지고 소신 운운하는건 우습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시청자 68.1% "자녀 TV시청 지도한다"

### SBS FM 조사...39.6% "선정적인 장면 시청차단"

시청자의 68.1%는 자녀들이 TV 시청을 할 때 시청지도를 하는가'라고 할 때 시청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BS 러브FM(103.5MHz) '김여준의 뉴스@21'이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1일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천134명을 무작위로 추출한 뒤 '어린이 혹은 청소년과

를 차지했다. 반면 '별도의 지도 없이 본다'는 의견은 16.1%에 그쳤다.

성별로는 '해당 프로그램은 아예 못 보게 한다'는 응답이 여성(25.3%) 보다 남성(31.8%)에서 높게 나타나 남성이 더 적극적으로 시청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이 '선정적 장면만 못 보게 한다'(53.6%)와 '해당 프로그램은 아예 못 보게 한다'(31.8%)는 의견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 featuring a woman on a horse. Text includes '창업 25년', '오래된 보청기(스타키) 보상판매 30%', and contact information for 본점 and 총장점.

## 케이블·위성TV 26일

Large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S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s for December 26th.

Advertisement for 'KBC' (Korea Broadcasting Company)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URL.

Advertisement for 'TBN' (Taejeon Broadcasting Network)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URL.

Advertisement for 'BBS' (Buddhist Broadcasting System)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URL.